

분회 울산경남회 세계에이즈의 날 종합행사 실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회회장 김선경은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12월 1일, 2일 양일간 울산 남구 공업탑과 유홍가 주변에서 제16회 세계에이즈의 날 맞이 에이즈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제16회 세계에이즈의 날(12월 1일) 주재인 권경과 차별을 넘어서로 가행된 이날 캠페인은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한국 등 동남아 국가 HIV감염인의 삶과 애환을 담은 애제이 사진전 전시와 함께 시민들의 에이즈인식 고취를 위해 길거리 공연, 기부행진, 그리고 리플렛, 콘돔 배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에이즈/성병 OX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588업주 '콘돔 의무지역' 선포

속칭 '청량리 588' 매춘업소들이 이 일대에서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200여 매춘업소 업주들로 구성된 전농2동 자율정화위원회는 12일 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량리 일대를 '콘돔 의무사용 지역'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청량리 588' 입구 5곳에 '100% 콘돔사용으로 에이즈 등 성병 예방'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콘돔과 에이즈 예방 팸플릿 등을 기부 배포하는 등 '콘돔 홍보전'을 벌였다. <경향신문 2003. 12. 12>

유럽 대형제약사 에이즈약 특허료 인하 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약의 특허료가 지나치게 높으며 환자들이 유럽의 대형 제약 2개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영국의 그락소스미스클라인사가 시세를 밑도는 특허료로 다른 제약사에 카피약의 제조를 인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고소를 당한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합의된 특허료는 남아시아공화국 내 에이즈 치료약 총매출액의 5% 수준이다. 일반적인 특허료는 20~45%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2003. 12. 11>

콘돔도 못막는 '독한 매독'

남성들 세계에서 '장화' 또는 '모자'로 통하는 남성의 필수품 콘돔은 미군과 함께 들어 온 대표적인 문물이다. 간혹 파손된 불량 콘돔들을 사용해 예기치 않았던 임신을 초래하거나 몸살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웬만한 성병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요도 속으로 병균이 침입해 생기는 대표적인 성병인 임질이나 비임균성요도염은 콘돔 하나로 안전할 수 있고 심지어 에이즈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콘돔으로도 막지 못하는 성병이 있다. 바로 매독이다. 매독은 요도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구강점막이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탓에 성기에 고무줄 씌우는 방법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간혹 매독에 걸린 환자가 콘돔을 한 채 관계를 가진 것만을 믿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딱 잡아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기보다는 다른 부위의 접촉에 의해 더 많이 전염되는, 즉 키스만으로도 얼마든지 매독이 전염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매독에 걸리면 특이한 부스럼이 입술이나 혀, 유방 같은 비성기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 항문 주변에는 균이 득실거린다. 또 증상이 심해지면 살이 썩어들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무엇보다 매독이 무서운 것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길게는 수십년간 잠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깨끗한 성생활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굿데이 2003, 12, 10)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KCDC)로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는 전염병 연구와 백신 개발 등을 맡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별도로 신설하고, 항만과 공항에 설치된 13개 국립검역소를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본부 내에는 기존 방역과는 해외 유입 전염병 관리를 맡도록 하고, 에이즈와 결핵 등 만성전염병을 전담하는 만성전염병 관리과와 생물 테러에 대비한 생물안전관리과, 예방 접종 대상 전염병을 다루는 예방접종관리과 등 3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안에 기존의 가정복지 심의관을 인구가 정 심의관으로 개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구문제 등을

아시아 또 하나의 '에이즈 대륙'

에이즈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돼 '제 2의 에이즈대륙'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에이즈 확산 일로** = 유엔 에이즈퇴치 계획(UNAIDS)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 한해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와 에이즈 사망자수가 사상 최대인 5백만 명과 3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수는 4백 80만명과 2백70만 명이었다. 에이즈퇴치계획은 또 지난해 4천2백만 명이었던 전세계 에이즈 환자수는 1년 새 4천만 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이는 사망자 숫자가 급증한 때문이며 에이즈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부족한 자원** = 올해 전세계 에이즈 프로그램의 규모는 47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1년의 20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지만 필요 경비인 1백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부족한 자원 탓에 아프리카 일부 병원에서조차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고 소독된 주사바늘 같은 기본적인 의료장비도 없어 감염 위험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시아 에이즈 급속 확산** =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지만 전염 속도는 아시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약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 중 올 신규 감염자는 12% 정도인 3백만 명이지만 아시아는 15~20% 정도가 올해 새로 감염된 신규환자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 보고서는 아시아의 에이즈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위험징후는 분명하고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에이즈 환자 비율은 낮지만 최근 몇 년간 신규 환자발생률은 해마다 30%씩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도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마을 전체로 단기간에 확산되는 등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AP통신은 25일 아시아의 에이즈 환자는 약 7백20만 명 정도이며 이중 5백만 명은 인도인과 중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이로 인해 성매매가 늘면서 에이즈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의 마약 공급지인 동남아 국가에 접한 탓에 마약 사용에 따른 에이즈 감염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인구 대비 낮은 환자 비율 등을 들어 에이즈 문제를 도외시키고 있다.

비현실적인 환자 통계치를 고려할 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식발표상 에이즈 환자는 15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공식 환자수는 1만2천5백여 명.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5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건 기반시설과 의료진 부족, 빈약한 방역체제와 함께 도시화에 따른 성매매 증가, 정부의 태만과 관료법 미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3, 11, 26)

총괄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 관련 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협력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과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회(3급) 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3. 12. 10)

에이즈환자 손잡는 중국총리

평민 총리로 불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파격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자와 의료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의 디탄(地壇)병원을 찾은 원 총리는 에이즈 감염자 3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감염자들을 자신의 좌우에 앉혔다. 일순 감염자들은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에이즈 감염자라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랜 투병생활을 통해 절감해왔기 때문이다. 원 총리는 그들에게 '에이즈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므로 질병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런 원 총리를 '에이즈 환자들과 악수한 제호 중국 총리'로 표현했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중국사무소의 어린이 에이즈 방역관인 쑹원(孔文)은 '원 총리가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격찬했다. 총리와 악수한 텐충(田聰)이라는 에이즈 감염자는 '에이즈 감염 소문이 난 뒤 산시(陝西)성의 고향 집엔 1년 내내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총리가 나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조선일보 2003. 12. 2)

중국 2010년 에이즈 감염자 천만명

최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와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10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해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국내 에이즈 실태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환자 수가 각각 84만 명, 8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에이즈 감염률과 사망률, 발병률이 30% 정도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치더(韓志德)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 부위원장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0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에이즈 확산은 앞으로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한 조사 평가 보고서도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이미 100만 명에 도달했으며 7개 성(省)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1985년 첫 에이즈 발병 사례가 보고된 중국은 이미 국내 31개 성·시(省市·성과 직할시) 전역에 에이즈가 확산됐으며 경제성장과 개방 속도가 빠른 연해지역 및 대도시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유엔 보고서는 중국의 에이즈 확산 상황을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는 타이타닉호(號)'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에이즈 확산은 주로 마약용 주사기와 성접촉, 출산 감염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성관념과 성지식이 저급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세계 최고인 70%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국무원 내 34개 부처가 참가하는 에이즈 예방치로 연락회의를 구성하고 우이(吳儀) 부총리 겸 위생부장을 책임자로 선임했다. 또 에이즈 방지를 위해 매년 2억위안(약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3. 12. 1)

중국 성매매 종사자 10명중 1명이 에이즈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중국·베트남 등에 최근 에이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이들 나라를 통한 에이즈 전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지 비상이 걸렸다.

유엔에이즈(UNAIDS)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2월 기준으로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에이즈 감염자는 70만~130만 명, 이 중 한국·일본의 에이즈 감염자가 2만 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파푸아 뉴기니와 함께 WHO가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 긴급 투여하는 '타깃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이즈가 중국 광시성(廣西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 지역 성매매 종사자(Sex Worker)의 에이즈 감염률은 약 11%, 즉 성매매 종사자 10명 중 1명이 에이즈

감염자인 셈이다. 이는 98년 약 2.5%의 감염률에 비하면, 2년 사이 4배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성매매 종사자의 약 20%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계산이다. 아직 성매매 종사자들의 콘돔 사용률이 저조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유엔에이즈는 분석했다. 광시성은 계림 등 국내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마약 등 약물 주사제 사용자들의 에이즈 감염률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97년 약 2.5%의 에이즈 감염률에서 2000년에는 약 17%로 치솟았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될 확률이 높은 바늘과 주사기를 이들이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에이즈 감염자 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겪고 있다. 2001년 베트남 호치민시의 성매매 종사자의 에이즈 감염률은 약 22%이며, 약물 주사제 사용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은 약 82%에 이른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마약 등 약물 남용으로 에이즈가 얼마나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선일보 2003. 11. 30)

사하라 이남 에이즈 고아, 7년후 2천만명으로 증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해 고아가 된 '에이즈 고아'가 현재의 1천 100만 명에서 2010년에 2천만 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에이즈 고아의 대부분은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학교교육도 중도에 포기한 뒤 매춘이나 광산 등에서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소속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에는 현재 15세 이하 고아가 3천 4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부모의 한명이나 둘다 에이즈로 사망한 에이즈 고아는 1천 100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에서는 2010년에는 에이즈 고아가 전체 고아수 4천200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0년에는 에이즈 고아가 100만 명에 불과했었다. (연합뉴스 2003. 11. 27)

남.서..한.마.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신혼의 고도리

신혼인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고도리를 차고 있었다. 모든 재원은 내기를 해야 재미있는지라 둘은 한 사람이 10점이 나면 키스하기로하고 20점이 나면 섹스를 하기로 했다. 신랑이 날 기뻐가 보이자 신부는 신랑이 20점 나기를 바라면서 밀어 줬으나 신랑을 결국 10점 밖에 나지 못했다. 아쉬운 대로 열렬한 키스를 하는 두 사람. 그런데 키스를 하다가 신랑이 달아 키스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신부의 팔을 잡으며 그녀는 나즈막히 속삭였다.

"자가~ 흔들었잖아..."

가로열쇠

- ① 급직스런 사고가 있을 때 급히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물건
- ② 구. ④ 백제가 망할 때 삼천 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대담가 잇든 바위. ⑥ 강요된 것에 대한 부담감. ⑦ 왕이나 왕비의 혼례 때 왕비나 새자를 맞아들이던 궁전. ⑧ 자구상에 있는 다섯 대담. ⑨ 결석재판. ⑩ 참수와 병졸. ⑪ 군사를 일으키는 것. ⑫ 골자를 한 자도 모르는 정도로 무식함. ⑬ 장학금을 받는 학생. ⑭ 조선 고종 때의 문신. 민중정공. ⑮ 유람이나 오락을 위해 여러 가지 설비를 한 곳. ⑯ 앞과 한 부분을 떼어 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

세로열쇠

- ① 비용을 지출하는 명목. ② 문이 검검이 이어진 깊은 궁궐이라는 뜻. 임금이 있는 대궐 안. ③ 솟아오르는 것까지 생각이나 느낌. ④ 김강현 장군의 출생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날 태어났다고 하여 이름은 이별이 붙었음. ⑤ 직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화성인. 퇴적물. 변성암. ⑥ 한 톨이 나뉘. ⑦ 그릇되게 단정하는 것. ⑧ 양치할 때에 쓰는 도구. ⑨ 한 톨이 나뉘. ⑩ 풀이 많은 사슴. ⑪ 풀이 많은 사슴을 죽여 풀이 없게 하는 증서. ⑫ 살아 있는 동안. ⑬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국가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⑭ 학생의 아버지의 아바나. ⑮ 조잡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화객. ⑯ 널리 이름이 난 사람. ⑰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흘러내리는 모래. 중국의 서부 지역의 사막지방.